

당신의 기발함으로 세상을

깨워 보아요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2025 FEB
Vol. 683

02

당신의
기발함으로
세상을

2025 FEB
Vol. 683
02

깨워 보아요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월호에서는 나의 가치를
‘깨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잔잔한 마음에 노크를 해 보세요.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우리 웃을 수



잠든
잠재력 깨우기

함께 즐길 수



겨울을 파고든 남쪽의 별
거제

내일 좋을 수



시대를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야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2월 1일 | **통권** 683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Special
THEME

04. 월간 수토픽

혁신 기술의 글로벌 축제
CES 2025

우리
웃을 수

08. INTRO

헤르만 헤세, 『데미안』 중에서

10. 일상적 사유

잠든 잠재력 깨우기

14. 일상의 쓸모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깬 사람들

함께
즐길 수

22. 다시갈지도

겨울을 파고든 남쪽의 별
거제

30. 보물여지도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제 여행

내일
좋을 수

40. 수타벅스가 간다

우리 함께 행복할 거제
거제권지사

44. 온전한 지구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돈 잘 벌려면

46. Focus on

세계시장을 정조준한 K-혁신 기술

50. Live on

민생경기 활짝
경제 한파에 온기를 더하다

16. 사적인 투어

승리를 하고픈 자
두뇌를 깨워라

20. 오늘 일기

동근 해 또 떴네
잠이나 깨자

34. 사람人지도

거제 바다로 뛰어든 모어나
해녀 진소희

38. 거제 한 상

겨울 식탁의 우아함
하프셀그라탕

52. Report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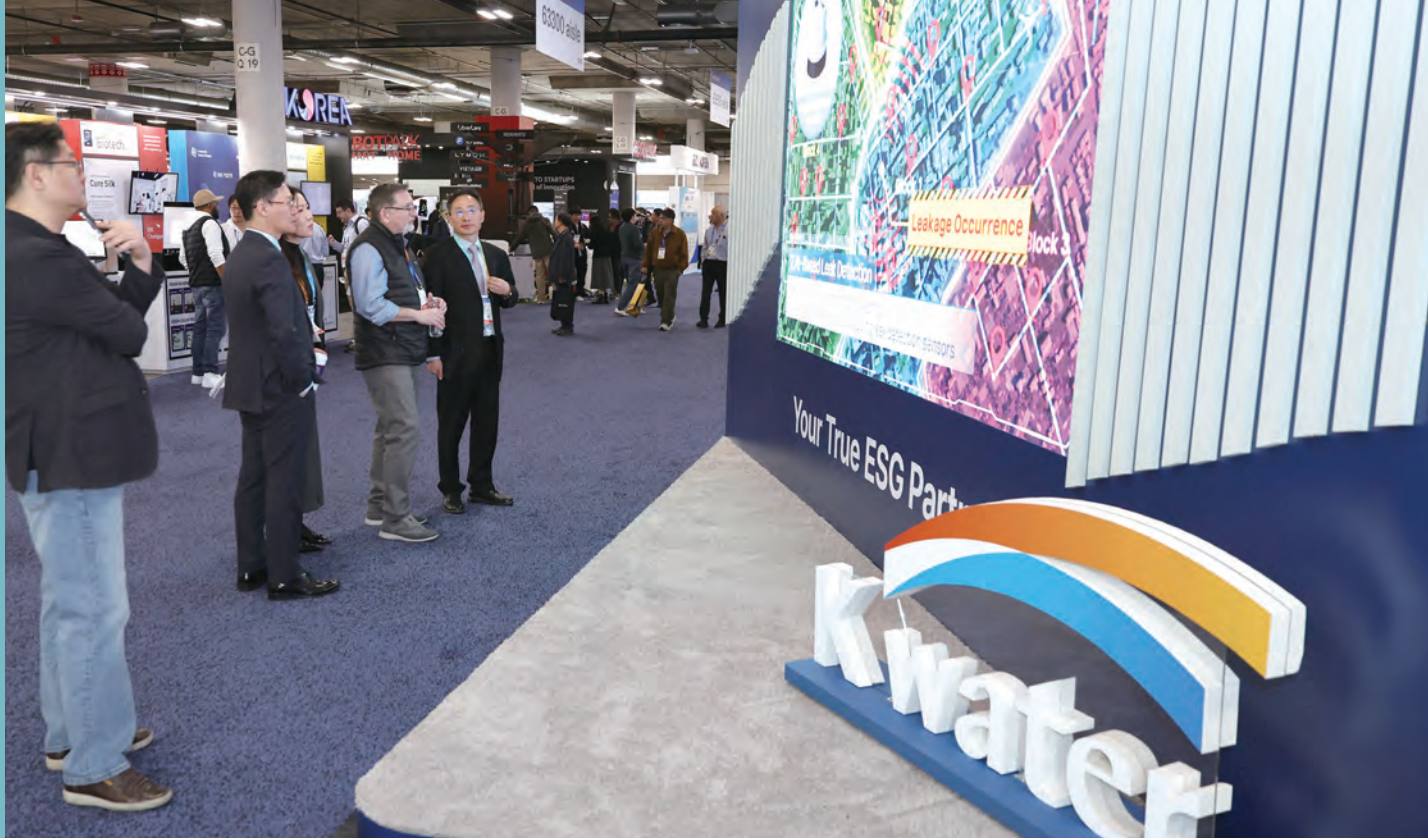
'맛'이라는 착각

54. News on

56. 워터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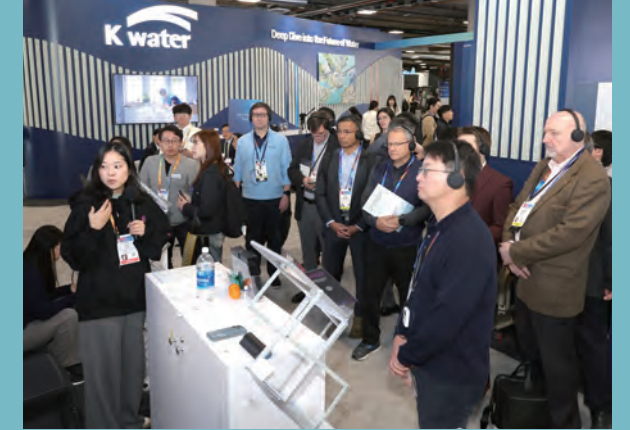
57. 방울특파원

58. 방울사서함



글로벌 선진 기술이 한 자리에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가 진행됐다. 1967년 가전제품 박람회로 출발한 CES는 최근 세계 ICT 분야의 흐름과 혁신 기술에 대해 정의하고 트렌드를 알리는 세계 최대 전시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채널로서도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참여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올해 CES에서는 14만 1천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4,500여 개사에 달하는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에서도 1천 개사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혁신 기술의 글로벌 축제

올 한 해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고, 트렌드를 앞서 읽을 수 있는 글로벌 기술 축제인 CES 2025가 개최됐다. ‘몰입(Dive i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CES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물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CES 2025의 현장과 함께 세계 각국을 몰입하게 했던 K-water 전시관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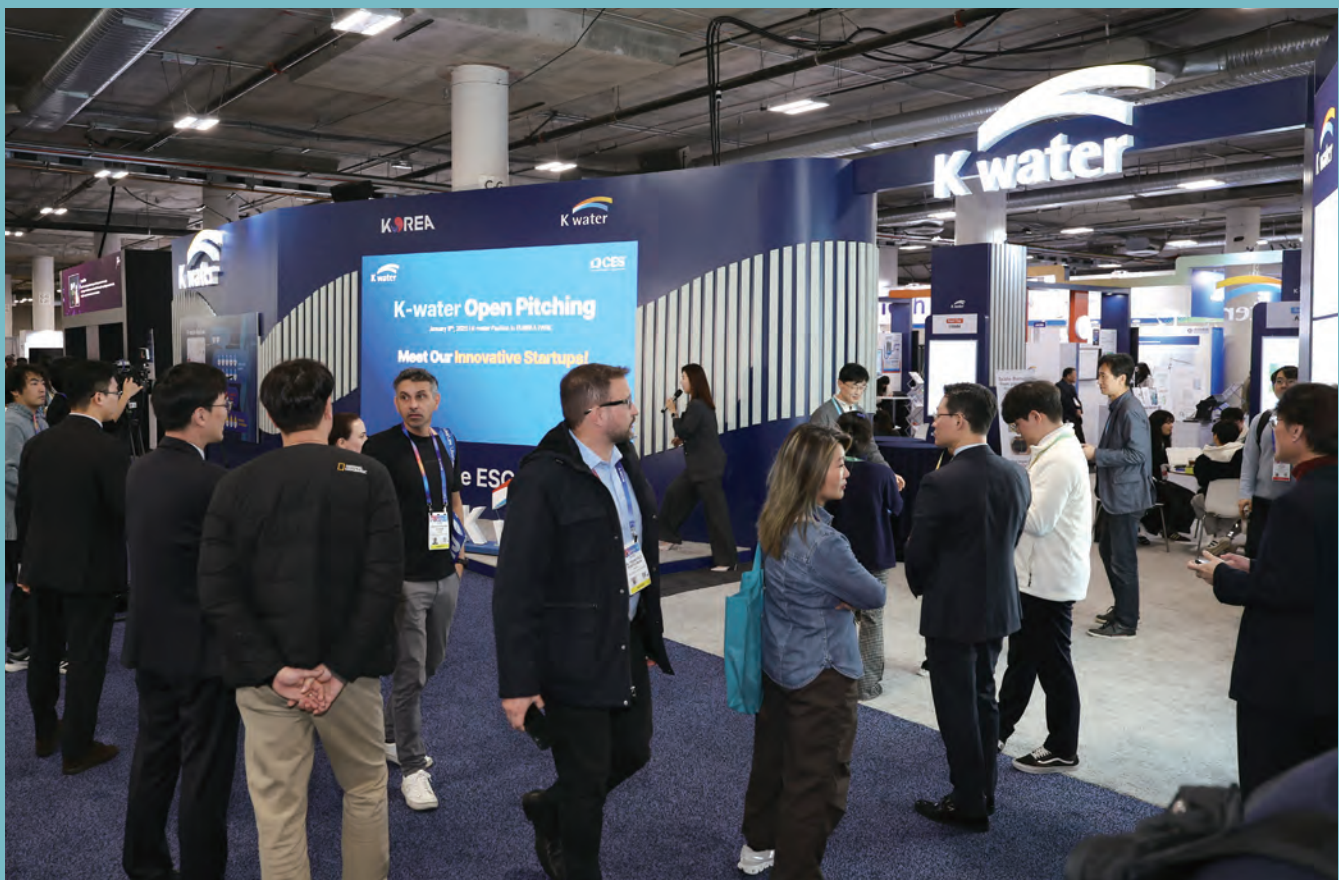
물산업의 미래를 건인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1월 9일 개관한 'K-water 전시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CES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로 3번째다. 이번 K-water 전시관에서는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며, 이밖에 기후위기 시대 속 미래 물안보 확보의 핵심이 될 기술들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물관리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기술을 미래 물관리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 올해 국내 19개 물산업 스타트업과의 동반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그중 12곳은 지역 소재 기업으로, 지방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2024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K-물테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일간 운영했던 K-water 전시관에는 9,500여 명의 해외 투자자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다녀갔다. 또한 총 800여 건(약 3,500만 달러, 510억 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현지 제품·기술 실증 및 기술협력 논의, 5건의 MOU 체결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동반 참가기업 중 3곳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수처리 공정 등의 기술력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했다. 수처리용 막 여과 기술을 활용한 이식형 인공신장기를 선보인 '이노셉', 세계 최초 산업용 나노버블 대량생산 장치를 개발한 '하우나노텍', 물 속 난분해성 물질인 과불화합물을 분해하는 기술을 가진 '퍼스트랩'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CES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 물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의 누적 수출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2,315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력으로 달려갈 계획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 헤르만 헤세, 『데미안』 중에서



잠든 잠재력 깨우기

글. 김창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숨기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뇌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비로소 행동으로 발현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뇌의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숨은 가능성을 깨울 수 있을까?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선 뇌에서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어제와 그제를 떠올려 보자. 우리는 매일 거의 비슷한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 95%는 고만고만한 내용이라고 한다. 생각도 습관이다. 습관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필요없거나 버려야 하는 비효율적인 습관도 있다. 나쁜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잠재력'이란 반복되는 익숙한 생활의 아래에 숨겨져 있다. 익숙한 패턴을 비껴 나가 하지 않던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번뜩' 하고 찾아온다. 가던 길을 벗어난다는 데에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좀 더 도전하며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잠재력을 꼭 고집어내야 할 필요는 없다. 환갑이 넘은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유지되어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수준은 유지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니 내가 가진 또 다른 기능, 잠재력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다.



로 우

우

평 이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연결

잠들어있는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혼자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많은 것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세상에서는 타인과의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내어놓는다고 한다. 이 말인즉슨 동료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때 나의 잠재력 또한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말은 일만 잘하면 되는 ‘작은 잠재력의 시대’는 끝났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잘 적응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머리를 모아야 가능성은 힘이 더 세진다.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 다양

생각의 습관을
다시 기르기 위해 뇌는
기존 패턴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노력과 연습은
필수이고, 실수는 필연이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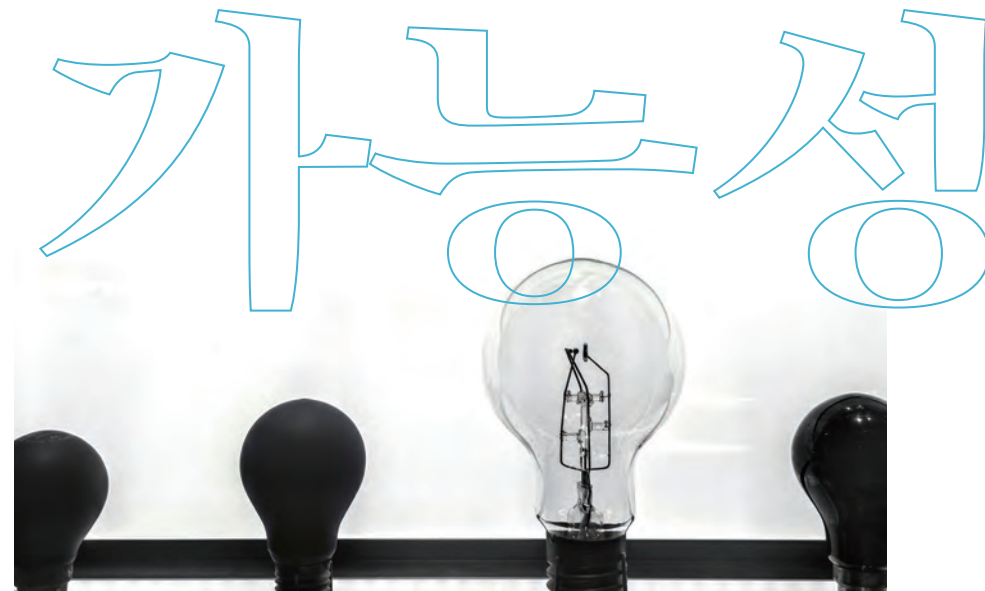
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고집스럽지 않게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타인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세상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과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잘 다듬어야 한다. 타인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일관성있게 대하며, 타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관계 개선 능력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로 독창적인 시각과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낱말과 사물, 상황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선천적인 인지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사색하는 시간과 현명한 사람들과의 대화,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 여러 개념들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찾은 후



나만의 방향 찾기

마지막으로 고집스럽지 않게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잘 조화시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성숙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이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심적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혼자만으론 잘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세상엔 현명한 사람들이 많다. 정해진 과정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방법과 포괄적인 목표로 선로를 옮기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삶은 늘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다. 나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타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 어우러져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함께 해야 잠재력은 깨어난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 교과서를 쓴 기분이다. 앞서 제시한 방법들에 의문을 갖는 것도 좋다. 그것 또한 나만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취할 부분은 취하고, 버릴 부분은 버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면 비로소 각자의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다.

에는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지능 검사의 소검사 중 ‘공통성 찾기’라는 검사가 있다. 얼음과 증기, 복수와 용서, 꿈과 현실 등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겉보기에는 반대되거나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나란히 놓고 연관성을 발견하는 동안 창의적인 사고력은 급격하게 높아진다. 문학에서의 서정적 사고와 이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통찰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기존 사고의 틀을 뛰어 넘어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덕분에 더 좋은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뇌의 패턴도 바뀐다. 생각의 습관을 다시 기르기 위해 뇌는 기존 패턴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노력과 연습은 필수이고, 실수는 필연이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깬 사람들

섬부른 판단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바꾸어 보자. 편견을 깬 사람들이
도달한 가능성의 세계를 비추어 본다.

글. 조수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천식 환자

2024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노아 라일스가 9초 784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 선수로는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노아 라일스는 관중들의 환호 속에 세계 1위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늘 금빛으로 빛났던 건 아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안기까지 라일스는 지난한 노력의 시간을 보내왔다. 12살 때부터 육상선수로 활동하던 그는 사실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트랙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유년시절엔 천식을 앓았고, 고등학교 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난독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꿈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힘든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다. 아들이 병마를 털고 일어나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강한 믿음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그는 “나는 할 수 있다.”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렇게 마침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라일스 그는 우승 직후 자신의 SNS에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나도 해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

무대에 선 청각장애

아이돌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합을 맞춰 노래하고 춤출 수 있을까.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해내고 있다. 3인조 그룹 빅오션 멤버 중 두 명은 어릴 적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고, 한 명은 사고로 한쪽 귀의 청력을 소신했다. 그러나 이들의 무대를 보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청각 수준과 반응 속도가 제각각인 세 사람이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다른 가수들에 비해 곱절로 힘들었다. 소리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빛 모니터를 쓰기도 하고, 스마트폰워치를 차고 박자를 익히기도 했다.

사실 이들은 AI 보이스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다. 멤버들의 목소리를 딥러닝해 음원을 제작하고, 손목시계 형태의 메트로놈을 통해 박자를 맞춘다. 하지만 기술은 거들 뿐. 무대를 완성하는 건 팔 할이 이들의 노력이다. 인이어 대신 보청기를 낀 채 작게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에 기대어 무대를 하는 이들은 때로는 팬들의 환호에 음악 소리가 묻혀 난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언젠가 라이브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을 꿈꾼다.



치열한 스포츠 세계에서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는데 유리한 조건 중 하나가 ‘피지컬’이다. 예컨대 펜싱선수는 팔이 길면 공격에 수월하고, 다리가 길면 빨리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농구선수와 합은 키가 클수록 유리한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 한계를 깨고 농구코트를 누비는 단신 선수가 있다. NBA 역사상 최단신 선수로 기록되어 있는 멕시 보그스 선수의 키는 160cm. 평균 신장이 188cm에 달하는 NBA의 포인트 가드는커녕 동네 농구코트를 누비는 일반인들과 비교해도 보그스의 키는 작은 편이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시선에는 늘 편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외면만 보고 비웃기 일쑤였던 사람들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그의 플레이에 압도되어 박수를 보냈다. 그는 단신이라는 한계를 어마어마한 활동량으로 커버했다. 탄탄한 체구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빠른 스텝으로 상대 선수들을 가볍게 제쳤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키가 작은 선수들은 대부분 코트 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득점 찬스에 몰입했던 반면, 그는 동료들의 득점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센스와 근성으로 그는 오랜 기간 NBA 팀플레이의 중심에서 활약했으며, 지금까지도 유니콘 플레이어로 통하고 있다.

코트 위 단신 플레이어



승리를 하고픈 자 두뇌를 깨워라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퇴근한 뒤에는 적당히 휴식을 취하다 침대에 눕는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정해진 틀대로 산다. 그러나 틀에 박힌 일상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잠잠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지금부터 두뇌를 깨워 보자.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지방수도처

박기원 대리

친구 강재묵 씨, 김세연 씨, 조혜림 씨



다름 속에서 찾은 조화

한바탕 맹추위가 다녀가고, 겨울 해가 따사로웠던 어느 주말. 박기원 대리가 대전 은행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 도착했다. 오늘 박기원 대리와 게임을 함께할 파티원은 친구 강재묵 씨, 김세연 씨, 조혜림 씨다. 네 사람은 사실 혜림 씨와 세연 씨를 필두로 맺어진 인연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같은 동네에서 자란 혜림 씨와 세연 씨가 서로의 연인과 모임을 만들면서 네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여느 절친 못지않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재묵 씨가 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친구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면, 세연 씨는 그 속에 살피야 할 것들은 없는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한다.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역할은 박기원 대리와 혜림 씨의 몫이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네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요즘 네 사람이 꽂혀 있는 건 보드게임이다. 이들에게 보드게임은 게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보드게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누군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플레이를 하는 동안 상대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 등을 배울 수 있죠. 매번 새로운 게임을 배워가는 설렘도 커요.”

이들을 게임의 세계로 안내한 건 혜림 씨다. 벌써 보드게임 10년 차라는 혜림 씨는 모임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모임에서 새롭거나 신선한 게임을 발견할 때마다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본인이 겪은 즐거움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다.





네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네 사람의 강점은 각각 다르다. 박기원 대리는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게임에 강하고, 혜림 씨는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전략 게임에 뛰어나다. 세연 씨는 창의적인 사고가, 재묵 씨는 관찰력이 필요할 때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다. 오늘은 네 사람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게임으로 몸을 풀기로 했다. “아르낙의 잊혀진 유적”이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고대 유적을 탐험하며 자원을 모으고, 도구와 유물을 활용해 점수를 쌓으면 되는데 몰입감이 상당해요.”라는 박기원 대리의 말마따나 게임 세팅만 했을 뿐인데도 테이블 위로 고대 도시가 세워진 듯 웅장했다. 주사위를 굴린 다음 가만히 판을 바라보는 혜림 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 그의 전략을 꿰뚫기라도 하겠다는 듯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승리의 여신은 혜림 씨의 손을 들었다. “사실 저녁에 두뇌가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잠에서 덜 깬나 봐요.”라며 능청을 떠는 박기원 대리의 말에 세 사람이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두 번째 판을 위해 다시 수많은 게임상자 앞에 섰다. 네 사람은 앞서 한 바탕 머리를 썼으니 잠깐 쉬어가자며 게임의 레벨을 낮췄다. 입문자가 하기 좋은 게임이 뭐냐고 물었더니 네 사람은 머리를 모으더니 이내 두 가지를 추천했다. “초심자에겐 ‘도블’이나 ‘카르카손’을 추천해요. ‘도블’은 반응 속도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게임이라 누구든 쉽게 할 수 있고, ‘카르카손’은 타일을 연결하며 점수를 쌓는 게임인데,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기에 두뇌를 깨우기 용으로 딱이에요.”라며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 자리로 돌아갔다.

매일을 게임처럼 산다

점심시간이 지나는 것도 잊고 한참이나 보드게임에 빠져있던 네 사람은 두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이제 술술 마무리할까?”라며 자리를 정리했다. 두뇌를 쓰는 것도 에너지 소모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쩍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이들은 사실 평소에도 두뇌를 깨우기 위해 나름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TV 채널을 돌리다 퀴즈 프로그램이 나오면 꼭 멈춰 문제를 풀어보고, 가끔은 퍼즐이나 레고 등을 맞추며 손의 감각을 깨우기도 한다. 다음주에는 방탈출에 도전할 계획이란다. 보드게임을 할 때는 서로의 심리를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면, 방탈출을 할 땐 한 팀이 되어 소통을 잘하는 게 관건이다. 누구든 아이디어를 내면 빠르게 적용해보고, 역할 분담을 해 다음 퀘스트로 나가야 시간 내에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팀워크가 꼬이면 낭패다. 하지만 그간 맞춰온 합을 보아 걱정은 없다. 그저 어떤 재미있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될 뿐이다. 이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다.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마치 퀘스트 깨듯 풀며 내일로 향한다. 물론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그 또한 기꺼이 풀어가다 보면 더 재미있는 날들을 만나기도 한단다. 그러니 이들의 미래에는 꼭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임의 끝판이 가장 화려한 것처럼 말이다.



mini-interview

“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데요
”

박기원 대리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덕분에 언제나 즐겁거든요. 지금처럼 앞으로 펼쳐질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꼭 네 사람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고마워. 나의 소중한 친구들♥



K-water연구원 이지은

새벽 5시에 기상해
따뜻한 레몬차 한 잔으로 하루를
깨웁니다. 그리고 글쓰기 30분,
독서 30분, 간단한 스트레칭 30분.
이렇게 저만의 모닝 루틴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영섬안전보건센터 최동주

찌뿌둥한 몸을 깨우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비몽사몽한 정신이 번쩍 깨거든요.
아침 운동을 한 뒤 출근하면
얼마나 상쾌하게요~



한강사업처 임지수

모두가 잠든 시간 조금 일찍 깨어나
'미라클모닝'을 실천 중입니다.
아침 6시마다 이어폰을 끼고
나가 공원을 달리고 있거든요.
덕분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의 에너지를 얻어요!



충주탐지사 이용철

잠을 깨기 위한 직장인들의 부스터,
바로 모닝커피 아닐까요? 업무 시작 전
동료들과 커피를 내려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하루를 여는
저의 루틴입니다.



영섬수도지원센터 박치준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인사
나누는 저의 반려 거북이입니다.
키운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덕분에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아요. 이 녀석들도
좋은 밤 되었는지 인사하러
가는 길이 즐겁거든요.

둥근 해

또

잠이나

깨자

늘 ‘오 분만 더’를 외치게 되는
마성의 공간, 침대. 이 포근하고 안락한
유혹을 뿌리치고 잠에서 번쩍 깨어나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수자원관리처 윤귀한

몽롱한 정신을 깨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맛있는 음식 아닐까요.
빵 굽는 고소한 냄새로 뇌를 자극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 완료~



군위탐지사 이시내

눈을 뜨자마자 저의 반려견과 산책을
나섭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어둠을 깨고 나선 강아지의 흥이
느껴지나요. 신나는 움직임 때문에
사진은 흔들렸지만 그만큼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죠?



기반시설사업단 백호정

아직은 어둠이 짙은 새벽 6시!
서리를 머금은 공기를 뚫고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셔틀콕을 때릴 때 나는 명쾌한 소리와
라켓의 떨림이 기분 좋은 자극을
주거든요. 이렇게 상쾌하게
하루를 열면 종일 기분이 좋아요.



영섬권수도사업단 김동우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항상
저보다 더 일찍 깬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다들 이 시간에 깨어 뭘 하나요?
부지런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오늘도 힘을 내 봅니다.

겨울을 파고든
남쪽의
별

거제

새삼 겨울 별에 끌리고 말았다. 포근하게 감싸 주던 양지와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하게 다가온 윤슬 때문일까. 거제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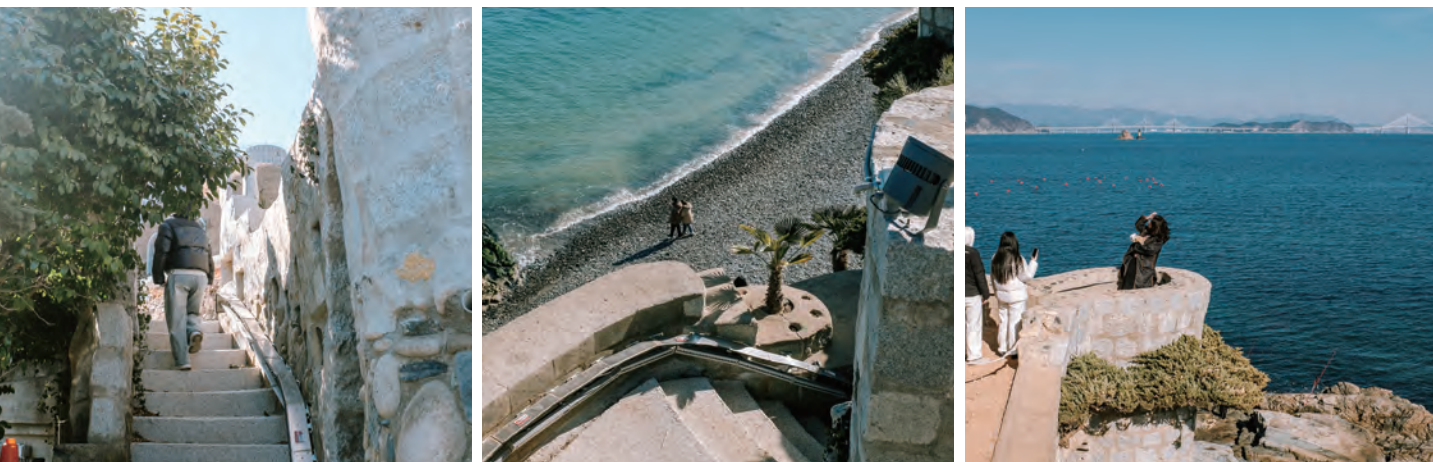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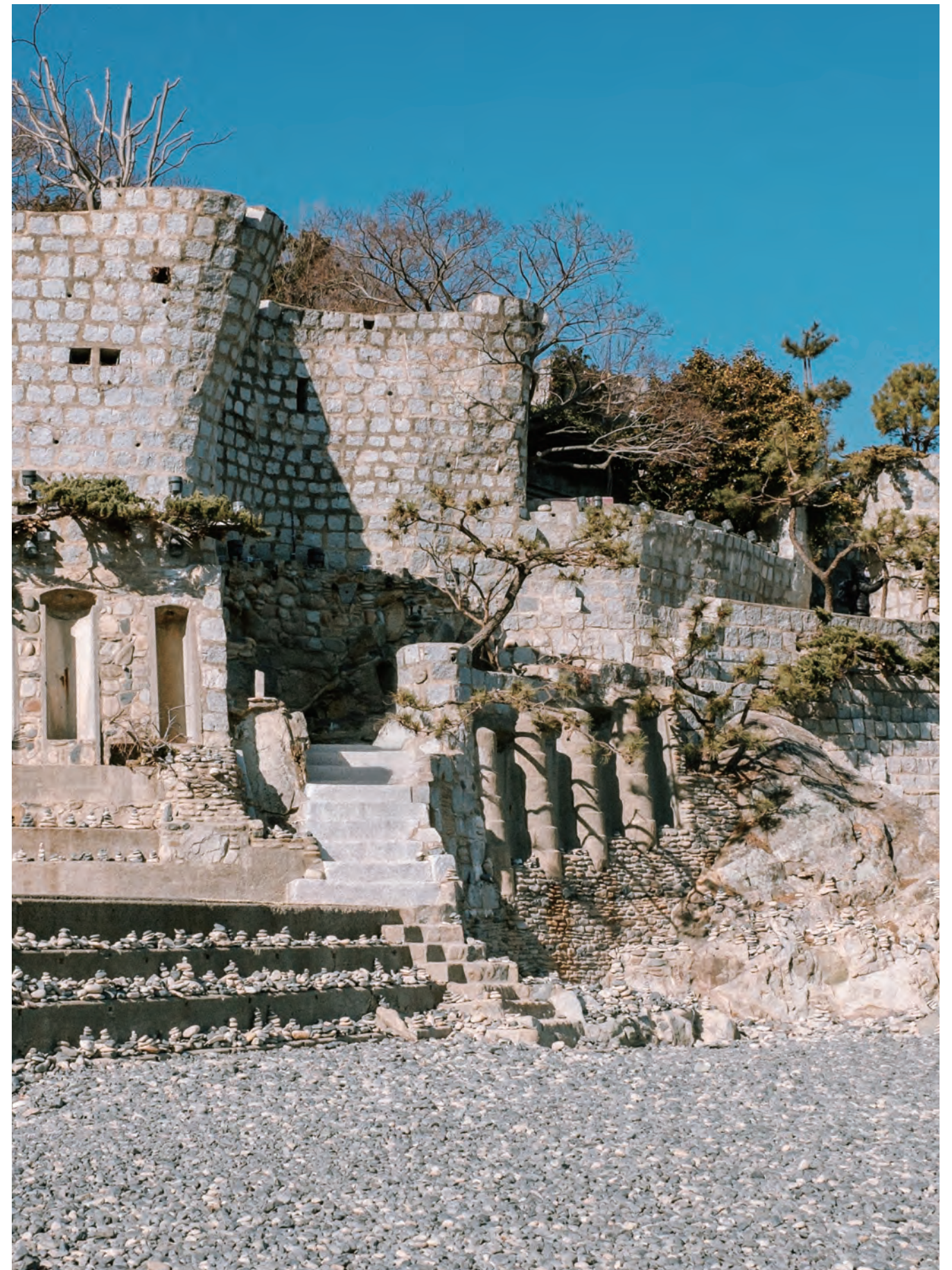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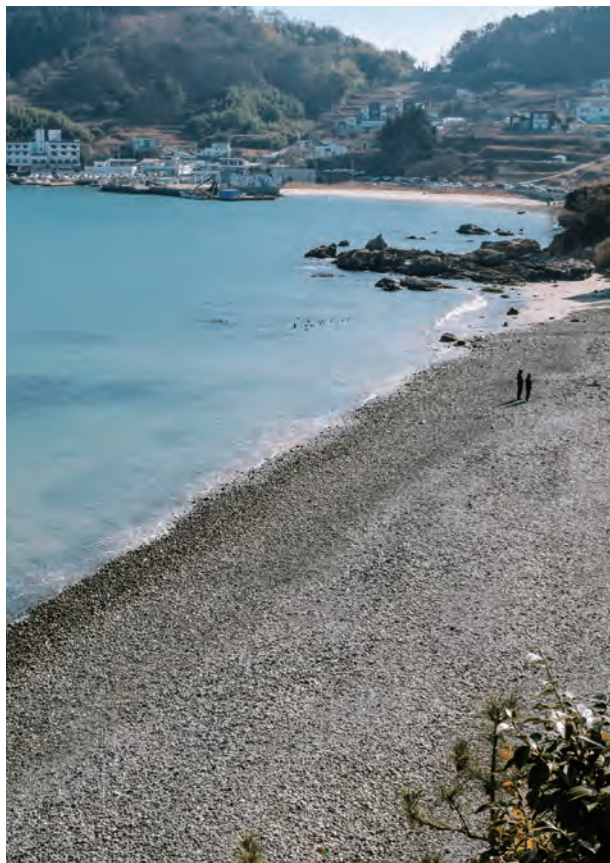
글, 사진, 박재현 소설가

매미성

꾸준함의 힘

바다 앞에 쌓았다는 점과 매미라는 이름보다 놀라운 건 이 성을 혼자서 지었다는 점이다. 매미성은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백순삼 씨가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성이다. 한 사람의 꾸준함이 성을 완성해 이제는 관광객을 오게 하다니. 동화 같은 이야기다. 성의 자태도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하다. 하얀 성이 푸른 바다와 어울려 이제는 자연의 일부처럼 보인다. 성 위에서 보는 바다 전망도 근사하다. 저 멀리 보이는 거가대교는 섬에 들어오기 위해 지나온 다리다. 그러니까 이곳에 온 여행자들은 모두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의 미래까지는 볼 수 없지만, 이곳의 단단한 미래는 알 것만 같다.

매미성 앞 해변에는 모래 대신
동그란 자갈이 깔려있다.
매미성에 올라 눈을 감고
파도칠 때마다 차르르 소리내며
굴러가는 몽돌 소리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다.





외도는 배를 타고 방문해야 하는데, 입도할 수 있는 선착장은 총 일곱 군데다. 외도로 들어가는 길에 해금강도 함께 즐기길 권한다. 다부진 자태의 바위섬에 매료될 것이다

외도 보타니아

외롭지 않은 섬

식물원이라면 큰 감흥이 없지만 섬 전체가 식물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섬에 도착해 전체를 둘러보려면 오르막을 올라야 한다. 그리 힘든 코스는 아니다. 곳곳에 큰 나무들이 있어 걸음이 가볍다. 야자수가 많고 선인장도 있어 다른 나라에 온 듯하다. 더불어 잘 다듬어진 나무와 꽃이 우아하게 어우러져 걸음을 자주 멈추게 한다. 작은 섬이라 어느 면에서나 바다가 보여 초록과 파랑의 조화가 기분 좋게 다가온다. 조금씩 보이던 바다가 전망대에 이르면 시야를 완전히 채운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코앞까지 이르는 우람한 윤슬은 외도가 외롭지 않게 오랫동안 섬을 감싸고 있다.



도장포마을

고요가 안으로

마을 곳곳에서 도자기 벽화와 조형물이 보인다. 오래전 원나라와 일본을 무역하는 도자기 배의 창고가 있다 하여 도장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집집마다 주소지도 도자기 위에 적혀 있어 미소가 번지게 한다. 마을의 중심으로 가면 동백나무 숲길이 있다. 수백 년 된 동백나무가 우거져 묘한 공기가 흐른다. 걷다 보면 내부가 한 평도 안 되는 듯한 초소형 순례자의 교회와 성경 구절이 적힌 우물터를 마주한다. 세상을 등진 고요가 서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만다. 이 순간을 위해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 돌아서선 멀리서만 보이는, 노란 슬레이트 지붕에 쓰여 있는 말을 곱씹는다. ‘그냥, 감사해요’

바람의 언덕과 붙어 있어 함께 여행하기 좋다. 마을 위쪽에서 바라본 바람의 언덕 풍경도 훌륭하다.

바람의 언덕

언덕에서 보는 바다

바람이 좋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서다. 존재를 촉각으로 인식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이곳에선 바람을 온 몸으로 감각할 수 있다. 바닷바람이 워낙 세차게 불기 때문이다. 그와 어울리게 언덕 위에선 풍차가 돌아간다. 아래쪽에서 보고 있노라면 어느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떠오른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유독 푸르다. 겨울이 아닌 것처럼, 밤을 모르는 것처럼. 바람 때문인지 푸름 때문인지 눈을 점점 가늘게 뜨게 된다. 이내 감고 마는데, 하나의 다짐을 한다. 여름의 푸름을 확인하러 다시 올 것이라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이곳에서 일출이나 일몰을 즐겨 보자. 묘한 하늘빛과 풍차를 함께 담은 사진은 작품이 될 것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제 여행

잠들어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궁금할 때도, 생동감 넘치는 최근의 트렌드가 궁금할 때도 이곳으로 가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여행의 경계를 허무는 거제로 간다.

글. 조수빈 사진. 박갑순 그림. 위든(witheun)



거제식물원

한겨울의 정글 탐험

산 어느 곳에 눈을 뒀도 뻘뻘쭉 쫓은 양상한 가지만 눈에 들어오는 계절. 그러나 이곳만큼은 녹음이 우거지다. 열대기후의 정글을 옮겨놓은 거제식물원이다. 7,472장의 유리로 된 정글돔은 거제식물원의 시그니처이자 거제의 랜드마크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인 정글돔의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계절도, 풍경도 사뭇 달라진다.

먼저 습한 기온이 정글에 왔음을 실감하게 하며 외투를 벗게 한다. 그러니 이곳을 찾을 때는 두터운 외투 안에 가벼운 옷을 입길 추천한다. 입구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하는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이내 가장 유명한 포토존인 새 동지에 닿는다. 비록 짧은 거리지만 곳곳에 늘어선 야자수에 시선이 빼앗겨 걸음을 늦춰 걷다 보면 첫 포토존을 만나기까지도 제법 시간이 걸린다.

새 동지를 지나고 나서도 이국적인 풍경은 계속된다. 29.6m에 달하는 돔의 천장에 닿을 듯 높은 야자수들과 열대식물의 뿌리가 하늘에서 드리우는 협곡, 서부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선인장원, 정글 폭포 등이 마치 탐험을 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 스카이워크에 올라 이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고 있노라면 2020년 개관과 동시에 SNS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정글을 통째로 옮겨 놓은 돔으로도 식물원 구경은 충분하지만, 추위가 풀리면 야외 생태연못이나 식물문화센터 등도 꼭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95
- 🕒 **운영** 동절기 09:30~17:00(11월~2월), 하절기 09:30~18:00(3월~10월)
매주 월요일 휴무
- ☎ **문의** 055-639-6997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61
🕒 운영 09:00~18:00(매주 화요일 휴무)
☎ 문의 055-639-0625

역사 속으로 떠나는 소풍

거가대교와 거제대교 등으로 육지와 이어지는 거제.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만 해도 이곳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게다가 면적이 넓어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실제 최대 17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실감나게 재현되어 있다. 입구에서부터 위엄이 느껴지는 이곳에는 '전쟁', '포로', '복원', '평화'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록물부터 영상자료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어 마치 역사책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놓쳐선 안 될 곳은 '디오라마관'이다. 이곳에는 포로수용소의 배치상황, 생활상, 폭동 현장 등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 또한, 그저 보기만 하는 감상형 전시가 아니라 거울미로나 착시미술 등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역할도 톡톡히 한다.

처절하고 험난했던 피란길, M.P 다리 등에서는 현지 모를 긴장감과 섬뜩함도 느껴진다. 그런 까닭에 다크투어의 메카로 불리기도 한다. 이제는 전쟁의 비극 대신 한적함이 맴도는 이곳을 거닐며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을 수 있다.



멸치와 커피의 오묘한 조화

멸치와 커피. 이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궁합이 궁금하다면 거제도 외포멸치로 가보자. 이곳은 '멸치 생산지'로 명성을 떨친 거제 외포리의 브랜드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작은 바닷마을에 위치한 카페 거제도 외포멸치는 이름과 달리 비릿한 멸치 냄새보다는 커피의 향긋함이 먼저 반기는 곳이다.

1층은 이곳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듯 멸치 가공 설비가 놓여 있다. 2층부터는 카페다. 통유리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벽면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영상이 스크린에 넘실댄다. 그리고 천장에는 멸치 떼가 이동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연신 은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잘게 쪼개져 환경을 어지럽힌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거제도 외포멸치에서 꼭 맛보아야 하는 메뉴는 엔초비모카다. 초코우유 베이스에 에스프레소, 크림이 올라간 커피인데 킁은 음료 위에 가지런히 놓인 크런치. 튀긴 멸치와 초코, 아몬드, 라즈베리로 만든 크런치가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나 재미를 더한다. 이밖에도 트렌디한 주전부리의 세계로 안내할 간식도 많다. 덕은 멸치 스낵, 여러 시즈닝으로 맛을 낸 멸치 튀김 등 외포멸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간식들은 꼭 맛보길 추천한다.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732
🕒 운영 매일 10:00~19:00
☎ 문의 055-635-7058



거제도 외포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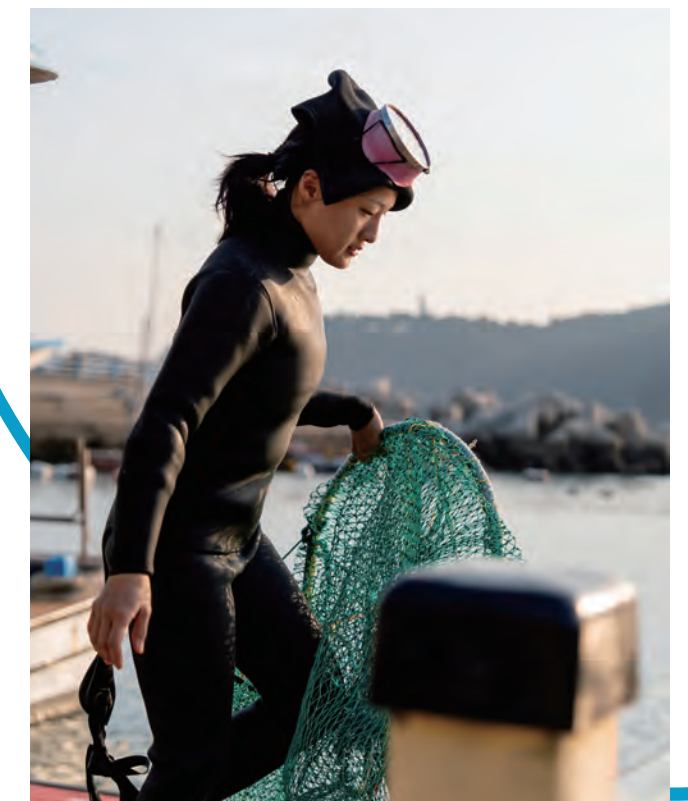
해녀 진소희

매일 바다로 뛰어드는 직업이 있다.
그리고는 네 시간이 지나서야 물으로
나온다. 맨몸으로 떠날 때와 달리
망태기에는 전복이며 해삼, 멍게,
소라 등이 가득 들어 있다.
바다를 누비는 청년 해녀 진소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글. 조수빈 사진. 박재우

거제 바다로 뛰어든

모아나



해녀에게 한눈에 반하다

멀리서 보면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점이나 마찬가지로. 그
런데 이 커다란 바다에 겁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해녀다. 해녀들은 제주 바다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진소
희 씨의 일터는 거제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바다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바다가
일터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10년 전만 해도 그의 일터는 바다
가 아닌 병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야심차게 병원에 취업을 했지만, 6년 차쯤 되자 직장인들에게 3년마다
찾아온다는 슬럼프가 그에게도 찾아왔다.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
기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야겠다
고 마음먹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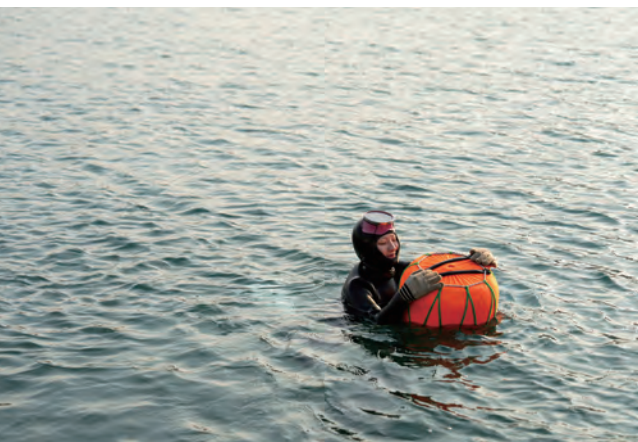
그런 그가 어쩌다 대학 캠퍼스 대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대학에 가
려고 거제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해녀라는 거예요.
집 앞 바다에서도 해녀들이 매일 물질을 하는데 너무 신선했어요. 일반
적인 직장이었다면 모두 퇴직했을 나이였는데도 여전히 자기 일을 열
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해녀에 한눈에 반한 소희 씨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대학을 가겠다고 그가 돌연 해녀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반응은 반반이었다. 반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적응하기에 몸과 마음이 너무 고되지 않겠냐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 같이 '너무 잘 할 것 같아'라며 응원을 해 주었다. 평소에도 도전정신이 넘치던 그였기에 무엇이든 잘 해낼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였다. 사실 모두가 말렸어도 소희 씨는 해녀 일을 하고 말았을 거다. 그만큼 그의 눈에 해녀들이 멋있었기 때문이다.

바다 아래의 꽃밭을 만나기까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담근다는 건 배울게 많다는 이야기다. 해녀 일은 작업복인 고무 옷을 입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요령이 없어 옷을 찢어 먹기 일쑤였던 그는 고무 옷 입는 법부터 시작해 물속 지형, 바람, 물때, 이퀄라이징 등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에만 1년이 걸렸다. 여기까지가 해녀가 되기 위한 일반과정이라면, 다음은 '거제' 바다에 적응하기 위한 심화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녀들의 활동지로 유명한 제주와 비교하면 거제는 작업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우선 물이 맑은 제주에 비해 거제 바다는 어두워 가시거리가 짧다. 그리고 어패류들이 물에 떠 있는 제주와 달리 거제에서는 대부분 바위에 붙어 있어 채취하기 위해서는 따거나, 파거나, 망치로 두드려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 앞에서도 소희 씨는 '오히려 좋아'를 외친다. **“물속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바다 속에 숨어있는 소라나 해삼, 멍게 등을 찾는 게 숨은그림찾기 같거든요. 그러다 처음 보는 어종이나 해초도 만나고요. 얼굴만 한 전복이나 문어라도 발견하면 어려운 미션을 깬 것 같이 진짜 행복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혼자 환호하고 막 웃어요.”**



사람인지도



36

제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는 바다 아래에도 꽃밭이 있다고 말했다. 미역이나 해초가 밀려오는 시기는 새싹이 돋는 것 같고, 빨간 멍게가 올라올 때는 붉은 꽃이 피는 것 같단다. 바깥세상과 시간은 다르게 흐르지만 바다 나름의 봄이 찾아오는 셈이다. 이 맛에 소희 씨는 오늘도 바다로 출근한다.

요즘 해녀가 말하는 요즘 바다

소희 씨는 MZ 해녀답게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중이다. 2019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해녀의 삶과 거제 바다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사실 초반에는 ‘해녀’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저는 고무 옷을 입고 할머니뻘 동료들과 종일 함께 있는데, 예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스스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해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 싶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소희 씨는 채널 ‘요즘해녀’를 운영하며 해녀의 시선으로 바라 본 바다 아래의 풍경부터 해녀 아이템, 해산물 먹방 등 자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해녀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후배 해녀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가 끝이야라며 자조하던 해녀 이모들에게도 웃을 일이 많아졌다.

많은 후배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는 해녀 중 가장 어리다. 해녀 일을 시작한 이래로 ‘최연소’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그는 훗날 최고령 해녀가 되고 싶다는 귀여운 야망을 전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바다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환경 문제를 정말 피부로 느껴요. 특히 작년 여름 장마기간이 유난히 길었고, 수온도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획량이 반으로 줄어 들었죠. 해녀로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저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다도 함께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해녀’라는 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서도 그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순가락 들 힘만 있다면 해녀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라는 그의 뒤로 펼쳐진 너른 바다가 소희 씨의 든든한 동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다 속 친구들의 응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다.

하프셀그라탕

꼭 '그때'에 맛보아야 하는
재료들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거제로 가자. 제철을 맞아 속이
딱 찬 굴을 먹지 않고 겨울을 그냥
보내기는 섭섭하니까.

글. 편집실 그림. 김정옥

거제 한 상



겨울 식탁의 우아함

제철 식재료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겨울엔 굴을 먹어야 한다. 굴에는 이로운 성분이 많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좋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다. 칼슘도 풍부해 성장기 학생이나 노년기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양소를 꼭 따지지 않더라도 겨울철 굴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도 식감도 가장 좋다.

술에 한가득 익혀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굴을 장갑 낀 채 하나하나 까먹는 게 클래식한 재미라면, 조금 다른 레시피로 요리해 이색적인 분위기를 내보는 것도 좋다. 하프셀그라탕은 뉴욕에서 즐겨 먹는 굴 요리다. 생크림에 잘게 다진 채소를 넣어 자작해질 때까지 졸인 후 굴에 올려 오븐에 구우면 끝. 마지막에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 주면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완성된다. 굴에 푹 적셔 든 고소한 생크림소스와 풍미가 가득한 치즈 맛이 어우러진 덕분에 굴의 비린 맛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와인과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다.

재료

굴 1kg, 시금치 40g, 양파 반 개, 다진 마늘 1T,
올리브오일 2T, 생크림 30ml, 빵가루 약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약간, 파슬리 약간,
레몬 반 개

레시피

1. 시금치와 양파를 잘게 썬다.
2. 올리브오일에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다
시금치와 양파를 넣는다.
3. 양파가 약간 투명해지면 생크림을 넣고 졸인다.
4. 팬에 굴을 올린 후 시금치 크림소스를 넉넉하게 붓는다.
5. 빵가루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약간 더한다.
6. 예열한 오븐에 200℃로 20분간 구워준다.
7. 기호에 따라 파슬리 가루와 레몬을 뿌려 맛있게 먹는다.



우리 함께 행복할 거제 거제권지사

겨울이 반가운 이유는 맛있는 간식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뜨끈한 간식을 가득 싣고 나타난
수타벅스 앞에서 모락모락 행복의 불씨를 키워가던
거제권지사의 달콤한 시간을 담았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2025년 거제권지사를 찾아온 대박 기운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한 거제권지사는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또 따사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남녘의 햇살이 따뜻하거니와 업무를 대하는 직원들의 열정이 뜨겁고, 서로를 대하는 애정이 두텁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수도 업무뿐만 아니라 용수댐 2개를 운영하며 지역의 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제권지사.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탓에 힘들 법도 하지만 어느 하나 불평하는 직원 없이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당연히 힘을 합쳐야 한다는 듯 한자리에 모인다.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던가. 올해 거제권지사는 기세가 좋다. 결혼 예정인 직원도 있고, 출산을 앞둔 직원도 있으며, 푸

른 뱀의 해에 유독 뱀띠 직원도 많다.

여기에 경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수타벅스’의 등장이다. 수타벅스를 향해 손을 흔든 사람은 지난 1월 거제권지사로 발령받은 최다한 사원이다. 그는 2024년 하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이곳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첫 직장생활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잘 적응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선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라는 그의 사연에 수타벅스가 응답했다. 첫 신청 만에 수타벅스의 주인공이 된 최다한 사원은 “사실 수타벅스를 처음 신청해보기 때문에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주었나 봐요.”라며 뿌듯하게 웃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거제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추위를 녹이는 달콤한 간식 타임

이번에 거제권지사를 찾은 수타벅스는 조금 특별하다. 평소 커피를 싣고 오던 수타벅스가 이번에는 겨울 간식들을 잔뜩 싣고 왔기 때문이다. 겨울 간식의 대명사 붕어빵과 호빵, 몸을 녹여줄 어묵까지 모락 모락 연기를 뿜어내는 수타벅스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에 설렘이 가득했다. “사실 수타벅스가 온다는 소식에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지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커피가 아닌 간식차가 온다는 거예요. 올겨울 유독 추워서인지 겨울 간식들이 간절하게 생각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타벅스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라는 김하늘 과장의 말을 증명하듯 수타벅스 앞으로 직원들이 길게 줄을 지어섰다.

세 가지 간식 중 무엇을 먼저 먹을까 고민에 빠진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라는 말을 건네자 김현지 사원이 “그럼 붕어빵이랑 어묵 주세요!”라며 간식을 양손에 하나씩 받아 들었다. 따끈한 국물로 몸을 녹이는 직원들 사이로 별안간 논쟁이 벌어져 가보니 한쪽에서 달콤한 슈크림이 최고라는 슈봉(슈크림 붕어빵)파와 근본은 클래식이라는 팔봉(팔 붕어빵)파가 최고의 붕어빵을 가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저는 호빵이 제일 좋네요!”라며 지나가는 추지훈 과장의 말에 모두가 빵 터졌다.

원 없이 간식을 먹은 후에도 직원들은 수타벅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직 간식이 부족한 동료가 있을까봐 일부러 자리를 지켜주는 듯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제권지사에 대박 기운이 가득한 건 어쩌면 ‘행운’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interview ●

저희 선배님들이 최고입니다!

통합운영과 최다한 사원

거제권지사로 첫 발령을 받은 지도 벌써 두 달 정도 지났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 따뜻한 선배님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2월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선배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돈 잘 벌려면



글. 송승섭 아시아경제 기자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기후를 걱정해야 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북극곰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아니면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남겨줘야 한다고 설득할까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모두를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극곰에 별 관심이 없고, 먹거리가 바뀐다 한들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안타깝지만 미래 세대보다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땐 이렇게 답해보세요. “돈 잘 벌려면 기후위기 해결해야지.”

기후위기는 ‘돈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돈벌이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동 식물이나 미래세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잘 먹고 잘살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뜨거워진 지구에서 내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해질지 깨닫는다면, 누구나 기후위기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될 겁니다.

2049년 당신의 월급은 20% 줄어듭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레오니 웬츠 박사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세계 소득이 25년간 연평균 38조 달러(약 5경 2190조 원)씩 감소하거든요. 너무 과한 분석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만 보수적으로 계산한 숫자죠. 앞으로의 탄소배출 영향과 기후위기로 오르는 물가를 고려하면 여러분의 지갑은 훨씬 알뜰해질 겁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약 2,791조 원

자영업자라면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요, 취준생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직장인은 잘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후위기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초래된 경제적 피해는 총 2조 달러(약 2,791조 원)에 이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죠. 한국은 괜찮지 않나고요? 세계자연기금이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30년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했는데, 한국은 100억 달러의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계 7위권 수준이죠.

대출 금리도 비싸질 겁니다. 은행들이 기후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연재난은 더 흉포하고 예측 불가능한 괴물이 됐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던 사업에도 예외는 없죠. 대출이 실행된 수많은 주택, 건물, 사업이 자연재해로 무너질 때마다 은행들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손실은 고스란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테고요. 전 세계 금융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죠.

이미 가격이 오르는 부문도 있습니다. 보험이죠. 20년간 전 세계 보험사들은 기후변화로 6,000억 달러(861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화재보험, 주택보험, 풍수해보험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보험사들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여러분의 보험료를 이미 인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웰링턴 대학의 기후학자 일란노이 교수는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보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기후위기의 투사가 되세요. 탈 없이 돈 벌면서 저축을 잘하고 싶다면, 치킨이나 초콜릿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지 않다면, 보험료 부담에 등골이 휘고 싶지 않다면, 고금리로 집을 못 사는 곤경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요.

세계시장을 정조준한 K-혁신 기술

전 세계의 선진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이는 CES 2025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동반 참가기업 중 3곳이 혁신의 정상
자리에 올랐다. 남다른 시선과 도전정신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을 만나 본다.

글. 편집실 사진. 각 인터뷰 기업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인류를 꿈꾸다 이노셉



Q — 이노셉은 어떤 회사인가요?

이노셉은 멤브레인 제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멤브레인 기술을 통한 정수 장치, 의료 기기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혈액여과 분야 브랜드 'PUREMIRR(퓨어미르)'를 출범하여 응급·전사용 정수키트, 농업용 정수장치, 의료용 정수장치, 바이러스 필터,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Q —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노셉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과 비전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특히 긴 개발 과정을 함께 해준 팀원들과 사업 운영에 버팀목이 되었던 투자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덕분에 이노셉의 가능성과 사업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혁신상 수상 제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혁신상을 수상한 이식·부착형 인공신장기 'PUREMIRR-IAAK'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신의료기기입니다. 현재 말기 신부전증 환자 투석 치료는 1960년대에 확립된 기술로, 여과 기능이 부족해 필수 물질의 유출이 많습니다. 하여 혈액여과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멤브레인으로 사구체 나노 구조를 구현했고, 세노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투석액 재사용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신체에 이식·부착하기에 적합한 소재를 만들었죠.

개발 과정에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으나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 CES 2025에서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타국가 전시관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구현해내는 선진 국가들의 매커니즘을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기술 고도화 과정에 돌입해 보고자 합니다.

Q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 과정은 어땠나요?

CES에 제품을 처음 출품하다 보니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을 비롯해 기업소개 전략, 기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법, 효과적인 영문 IR 구축 등의 컨설팅부터 해외 진출 전략, CES 비즈니스 매칭 준비, 성공적인 바이어 미팅 방법 등 많은 방면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Q — 이노셉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멤브레인을 활용한 의료기기와 정수기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노셉이 연구·개발한 시스템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Q —— 퍼스트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퍼스트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설립된 연구기업으로 주요 연구 분야로는 무게면활성제 물질 혼합 기술,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유효성분 추출 기술, 난분해 물질을 분해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자원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외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Q —— 이번 CES 2025 혁신상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산업장비 및 기계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무게면활성제 나노 유화·분산 장비’는 퍼스트랩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에 도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습니다. 저희의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개발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세계 최초의 도전 퍼스트랩



Q —— 무게면활성제 나노 유화·분산 장비는 어떻게 개발되었나요?

현재 화장품, 식품, 약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 공정에서 여러 물질을 섞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입자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퍼스트랩에서 개발 중인 접촉형 초음파 기술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원천 기술로, 한마디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검증하고, 개발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 다.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값집니다. 계면활성제의 도움 없이 물질들을 배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는 난분해 물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아 환경문제 해결과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 한국수자원공사 협력 기업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현재 수처리 분야에서 난분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주로 활성탄이나 필터를 이용한 흡착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착 방식은 2차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실제 분해 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 다. 그렇기에 저희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했지만 난분해 물질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국수자원공사가 여러 현장의 오염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우리의 기술을 검증할 수 있었고, 실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조언을 통해 현장 조건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Q —— 퍼스트랩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과 실천이 필수입니다. 이에 퍼스트랩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Q —— 화우나노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물’은 모든 생명에 필요한 필수요소입니다. 이에 나노버블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과 산업, 자연과 환경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용 나노버블을 실시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전무후무한 기술을 통해 환경 개선 솔루션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세계 굴지의 기업 중에서도 나노버블 제품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화우나노텍이 처음입니다. 나노버블 기술과 응용제품을 개발하느라 밤낮으로 여념이 없었는데,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함으로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노버블의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과 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 나노버블 발생장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나노버블 발생장치는 이산화탄소를 실시간으로 대량 용해해 이를 저장·활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장치를 통과한 이산화탄소는 물에 오래 용존돼 이산화탄소의 저장이나 활용을 보다 쉽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나노버블 발생장치는 세계 최초로 산업용 나노버블을 실시간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먹는 콘크리트(CEC)를 쉽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활용·저장 등에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노버블 기술로 화우나노텍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세계 나노버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도 아직까지는 산업용 나노버블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노버블 기술을 통한 세상의 변화

화우나노텍



Q ——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는 동안 특별히 고마운 분이 계시다고요.

국제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이었기에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이때 한국수자원공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혁신상 신청 컨설팅, PR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도움을 받았거든요. 덕분에 국내외 잠재투자자 미팅, 신규 거래처 개척, 언론 인터뷰를 통한 기업 인지도 상승 등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병우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23년 ‘협업 스타트업’에 선정되면서 만나게 된 멘토인데 늘 화우나노텍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셨거든요. 특히 CoP 과제를 제안해 주셨었는데, 덕분에 ‘도관의 무동력 대용량 스케칠 제거장치’ 개발에 착수하게 됐고, 2024년 말 성공적으로 개발 완수, CES 2025의 출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 —— 화우나노텍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화우나노텍은 ‘나노버블 기술을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이념 아래 물, 액체, 기체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나노버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공정의 친환경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민생경기 활짝 경제 한파에 온기를 더하다

‘경기 불황’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지금, **호한을 견디고 있는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 조기 집행 내용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1,704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최근 4년 동기간 평균 집행금 액 대비 680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정부의 민생경 기 회복 대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조기 집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구 축 계약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선금을 투입한다. 침체기에 있는 건 설 경기를 보장함으로 하도급사,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최초로 2021년 자체 도입한 선금 보증 수수 료 특별지원 제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선금 지급을 위한 요건인

선금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최대 100%까지 지원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또한 시행한다.

소비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다진다. 특히 댐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비 450억 원을 조기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농특산물 판매 장터를 확 대 시행, 지역 농가의 체감 소득 증대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전국 지사 인근 지역의 매력 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SNS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 끝으로 일반직 채용을 앞당겨 2월 중 마무리하 고, 인턴 운영 규모는 4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인과 중장년층 대상 으로 댐 주변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도 4천 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 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짐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총력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댐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내수 활성화를 지원 해 민생 지원 체감도를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2일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에서 열린 '낙동강 설맞이 지역사랑 나눔 장터'의 농특산물 홍보 부스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조기 집행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건설경기보강



- **1,704억 원** 설 명절 전 투입
(최근 4년 동기 대비 1.7배)
- 노후수도시설 개선, 수변도시 조성 등
SOC 조기 발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최대 100%** 선금 지급 규모 확대
- **최대 100%** 선금 보증 수수료 특별 지원
- 선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450억 원** 상반기 집행
-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생계비 및 장학금 지원** 등 집행
- **지역 특산물, 숨은 명소, 축제** 등 집중 홍보 (SNS 활용 등)

일자리 창출



-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채용** (2월, 200명)
- **청년인턴** 채용 확대 (2025년 400명 이상)
- 노인 및 중·장년층 대상 **상생형 일자리 창출** (4,000개 이상)



‘멋’ 이라는 착각

부라부라 외출 준비를 하다 옷장 앞에만 서면 시간이 멈춘 듯 동작이 느려진다. 그리고 한탄한다. “입을 옷이 없네.”라고. 멋쟁이들의 고민이 지구에게는 그다지 멋이 없는 행동이라고 한다. 유행의 흐름만큼 의류 폐기물이 쌓여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멋에 대해 고찰해 볼 시간이다.

글. 조수빈

빠른 유행에 드리운 그림자

통 큰 바지, 스포티한 티셔츠, 볼캡, 집게 핀, 키링... 이 아이템들이 유행하던 시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약간 헛갈린다. 분명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세기말 패션인 것 같은데, 요즘 길거리에 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패션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키워드인 'Y2K'란 2000년대 초반의 스타일을 일컫는 말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인기를 얻었던 아이템들이 재유행의 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듯 패션의 유행은 빠르게 흘러가고 또 빠르게 돌아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입은 옷을 오늘 다시 입을 순 없다. 미묘한 차이로 '멋'과 '촌스러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빠른 유행은 우리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지만, 지구에게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옷은 생산하는 그 자체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다. 그린피스와 세계원예연맹(WFO)에 따르면 의류를 생산할 때 연간 800조L의 물이 소모되고, 1억 7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며,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의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면화 재배를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양도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류 생산·소비량은 연평균 3.4%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패스트패션'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패스트패션이란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옷의 생산부터 판매,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만 원대 티셔츠를 사서 한 해 입고, 금세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싸니 또 사면 된다는 식이다. 자연스레 의류 폐기물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 옷만큼 버려지는 양이 많다는 건 반성해볼 일이다.

Slow Fashion



흔적 없는 패션

패션 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옷을 덜 사고 오래 입는 것이다. 그러나 유행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면 다음 키워드에 집중해 보자.

첫 번째는 '슬로우패션'이다. 패스트패션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질 좋은 소재와 탄탄한 내구성,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의류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무조건 유행만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개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옷을 사거나, 세컨드핸드숍(중고 물품 판매점)을 이용하고, 기부하는 행위 또한 모두 슬로우패션에 속한다.

두 번째는 '컨셔스패션'이다. 컨셔스(Conscious)란 '의식 있는'이라는 뜻으로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공정까지 환경과 윤리를 따르는 의식 있는 패션을 말한다. 패션 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의식을 드러낸다. 대표적으로는 오리털이나 모피, 캐시미어, 실크 등 동물성 소재 대신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경우다. 합성섬유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동물성 재료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더 크다. 버려진 폐자재를 이용해 의류를 만드는 브랜드도 많다. 가방 천은 버려진 트럭용 방수 천막을, 가방끈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고무는 폐자전거 튜브에서 얻는 식이다. 모든 제품이 서로 다른 폐기물을 사용해 만들다 보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진정한 '패피(패션 피플)'란 무엇일까. 보여지는 멋에 치중하거나, 유행을 서둘러 쫓아가기보다는 똑심 있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제대로 된 의식 속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패피'가 될 수 있다.

Conscious Fashion



NEWS

K-water Monthly Magazine
2025. 02 | Vol. 683

01 글로벌 물기업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 선언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 도전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기후위기와 미래산업 지형의 변화로 물관리 여건이 날로 복잡해지는 시대에 맞서 '혁신'과 '기본'을 주요 골자로, 2025년 새로운 목표에 부합한 4대 중점 경영 방향을 설정하여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방향은 물안전 강화, 물기술 혁신, 글로벌 물시장 개척, 내실 강화로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의 해외 진출 등 지금껏 거둔 성과에 기반이 된 한국수자원공사만의 물관리 역량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담았다. 윤석대 사장은 "2025년은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우리의 사명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물관리 혁신 기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고, 글로벌 물시장에서 또 하나의 K-컬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2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핵심기반 363개 중 가장 많은 55개 시설(댐 34개소, 정수장 21개소)을 운영·관리하는 식용수 분야 핵심 관리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보호 계획 수립과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홍수기 동안 국가핵심기반인 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극한 호우에도 하류 영향을 최소화한 노력, 평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한 노력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더해, 주요 정수장 예비 자재 집중센터의 설비를 자동화하여 비상 상황에도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급자재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핵심 기능의 유지관리에 노력한 결과, 이번에 대통령 표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03 '설맞이 지역사회 나눔 장터' 개최

지난 1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낙동강 설맞이 지역사회 나눔 장터'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는 진주시, 청송군 등 6개 댐 주변 지역의 사과, 대추 등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임직원이 함께 농가와 직관 거래하며 농가의 활력을 북돋웠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상당 장터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구매품은 댐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04 물정보포털(MyWater), 다국어 최적화 서비스 개시

외국인들의 물 관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물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물정보포털(MyWater) 누리집(www.water.or.kr)의 다국어 번역 최적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물정보포털은 국내 최초로 산재한 물 정보를 통합하여 수질 및 가뭄, 녹조 등 281개 항목, 하루 60만 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융복합 포털이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외국인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면 구성 전면 개선이 최우선으로 반영됐으며, 이용자가 많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언어를 확대하며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화면의 디자인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05 국내 최초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 오픈

지난 1월 20일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환경, 문화, 통신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우리나라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bigdata-environment.kr)에서 운영 중이다. 주요 기능은 전국 3,800여 강·하천 위치와 중심선 표출, 인접 생태·문화 정보 제공, 강·하천 중심선 기준 거리별(50m~3km) 정보검색 설정, 사용자 실시간 위치 기반 검색,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모바일 반응형' 기능 적용 등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강'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생태·문화자원을 선택하여 물의 정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코스를 만들 수 있다.



바다의 색

‘바다’ 하면 대부분 ‘푸른색’을 떠올리겠지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색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색은 여러 개일까?

글. 편집실

바다는 하나인데, 색깔은 여러 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그런데 재미있게도 각 바다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짙은 코발트색의 동해는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서해는 낙조 무렵 붉게 물드는 바다가 압권이다. 제주도로 가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마치 지중해를 연상케 한다.

실제로는 투명한 물이 모여있을 뿐인 바다가 이처럼 다양한 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반적으로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햇빛 때문이다. 바다를 내리쬐는 햇빛에는 여러 가지 빛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서 푸른 빛은 가장 늦게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바다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푸른 바다에 플랑크톤이나 산호초가 많이 자생하면 초록색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제주 바다는 봄철에 유난히 에메랄드빛이 진한데, 그 시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계절이 지나 플랑크톤의 번식이 잦아들면 바다색은 조금씩 어두워진다. 반면, 동해의 경우 산호초가 많지만 수심이 깊기 때문에 산호초의 영향의 거의 없다. 따라서 초록색보다는 짙은 파란색으로 보인다.

강이나 하천에서 유입된 모래가 많은 강 하구나 연안 지역에서는 황토색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가 그렇다. 특히 여름이면 더욱 많은 흙이 흘러들어와 노란빛이 짙어진다. 이제 친구와 바다의 색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의견이 갈리면 ‘어느 바다’를 떠올리고 있냐고 물어보자. 서로가 정답이기를 외치기보다는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설명하며 다른 바다의 매력을 알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방물특파원★

#취미는소통 #특기는귀여움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디오라마로 만나는 합천댐

합천댐의 아름다운 매력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너무 멋있잖아?

#합천댐 #아름다운 매력

#디오라마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BLOG.NAVER.COM/LOVEKWATER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겨울철 자동차 체크리스트

#타이어마모 #제동장치
#블랙아이스

X(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업무 시작 전 따뜻한 차로
몸부터 녹이자!

#출근루틴 #모닝커피
#직장인포션

페이스북

WWW.FACEBOOK.COM/ KWATERWORLD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똑똑한 방법

#실내적정온도 #외풍차단
#보일러외출모드
#에너지소비효율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하루 한 번
겨울보고 주문 걸기

#방물네컷 #자존감천재
#자기최면 #새해주문

1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류○옥(2179)

‘수타벅스가 간다’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근무하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들이 전국에 있다는 걸 이렇게나마 소개해주니 의미가 깊네요. 저도 응원을 보냅니다!

강○별(3341)

환경학도로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1월호에는 새 출발을 앞두고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실어주셨더라고요. 특히 독자들이 추천해준 새해 첫 곡이 좋았어요. 노래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었어요!

손○식(7526)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왔는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새로운 시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탐구심을 갖고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 세상은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있겠죠?

우○오(8302)

누구나 회사 밖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동료가 여러 취미를 즐기며,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모든 직장인의 회사 밖 생활을 응원합니다.

정○리(2700)

자연이 순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에 부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온전한 지구’를 통해 물을 소중히 여기는 게 곧 자연 전체를 아끼는 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EVENT 01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 10명



박○희(3721)	조○주(8585)
문○준(8618)	권○연(8193)
하○혁(0245)	정○진(6091)
오○훈(5500)	김○원(2974)
박○자(7576)	김○정(1456)

EVENT 02

새해 다짐 소문내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이○걸(2023)	정○진(1276)
장○지(7977)	최○은(3974)
이○정(3492)	나○희(2507)
조○현(6499)	이○음(9787)
박○미(1839)	정○경(0126)

EVENT 03

편지지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강○우(3733)	이○수(1063)
김○진(2522)	남○은(0631)
김○희(0157)	

※ 2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EVENT 0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2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도미노피자 슈퍼슈프림(5명)

접수 마감일

2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28일



응모하기

검색창에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EVENT 02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글로벌 선진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인 올해 ○○○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참여방법

-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2 1:1 채팅방 클릭
- 3 정답/성함/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10명)

접수 마감일

2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28일



응모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월호

방울이 편지지는 사랑을 싣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서
마련한 방울이 편지지에 마음을 실어보세요.
저마다의 행복이 가득 담긴 독자들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블루 티켓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블루 티켓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카의 초콜릿 공장 체험(114년 후)
- 초콜릿 대신 방울이의 사랑으로 혈당 걱정 없이 당 충전
- 왓치 하루종일 두뇌가 핑핑 잘 도는 기분

Bangka

※ 본 티켓을 초콜릿 등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티켓 훼손 시 혜택은 아리송해집니다.

Bangka



2월호 테마 참여 EVENT

미라클모닝 챌린지

2월호 테마 '깨울 수'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세요.

아침 일찍 깨어나 미라클모닝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구독 QR

STEP 2

1:1 채팅방 클릭



STEP 3

미라클모닝
인증샷 제출

인증샷/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1인 패키지(10명)

접수 마감 2월 20일 / 선물 발송 2월 28일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